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제23화학대대 태권도 PT
극동지구대 건강검진

3면 군관련 소식

군상식
한마디

4,5면 부대 탐방

177경리대대



6면 자유 공간

이현규의 축구이야기

7면 영어교육연재

Winglish.com

8면 안녕하세요

린애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6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 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CSM Welch 가 전하는 메시지

Troy J. Welch 주임원사는 5월 2일 취임식을 가지고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미8군의 최고 부사관직을 새로 맡게 되었다. 그는 취임식을 며칠 앞둔 상태에서 카투사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무수행에 대한 각오를 밝히고 카투사 관련 화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LaPorte 장군이 주임원사직에 저를 선정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매우 기쁩니다. 그 자리에 대해, 그리고 그에 따를 도전에 대해 매우 기대가 됩니다."

Welch 주임원사는 색다른 주특기(MOS)를 지녔다. "저는 군대에서 취사병 생활을 해왔으며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기 때문에 취사병으로 지원했습니다."

Welch 주임원사는 한국에 3년여 있었으며, 23지원단과 19전지사에 있었다. 처음 한국에 왔고, 마음에 드는 점이 많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진심어린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친구를 만든다는 것은 평생 친구를 의미합니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문화와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도 좋아합니다. 음식 또한 좋아합니다." 그는 또한 한국에 있다보니 좀더 '실질같은, 어려운, 우수한' 훈련을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실질같은 훈련이 있고,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문화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카투사들과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미군이 한국에 올 수 있

는 기회가 주어지면 와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카투사들의 기여에 대해서도 말했다. "카투사 없이 미8군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카투사들의 군생활이 어떨 것 같냐고 묻자, 그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했다.

"50년이 된 한미 동맹에서 카투사 프로그램의 병사들은 실로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카투사'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미군에 한국군을 증원하는 프로그램' 안의 대한민국 육군 병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언어장벽, 그리고 두개의 다른 문화와 지휘계통 사이에서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또다른 기회라는 측면 또한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한편 다른 군대에 대해, 다른 문화에 대해, 다른 언어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한국군 병사들이 갖지 못하는 대단한 기회입니다."

만약 자신이 카투사로 군에 입대한다면, 군생활의 목표는 무엇으로 설정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모든 군대의 목적은 타국의 침략을 막는 것이며 뭔가를 배우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몇년을 복무하던기간에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미군들에게 한국 문화를 이해시키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이었으



카투사 신문 강병삼

면 합니다. 미군들을 부대 밖으로 데리고 나와 한국 문화를 자주 보여준다면 현재의 좋은 관계가 더욱 굳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카투사들에 대한 그의 바람이다.

그는 또한 "각 부대 지원대장, 또는 한국군지원단 주임원사와 상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투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Welch 주임원사는 자신이 군이라는 커다란 조직 내에서 현재의 위치까지 오른 비결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제가 남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오늘의 위치에 올랐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제가 언제나 하고자 했던 것은,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맡던 간에, '절대적으로'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입니다. 일이 주어졌을 때 대강 처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가진 전부를 바쳐 해결했습니다. 자신의 부대, 보직이 무엇이건 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군인의 임무입니다."

상병 강병삼

박성기 주임원사 휘장 수여식



지난 19일 용산 메인포스트에 위치한 한국군 지원단 본부에서는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주임원사인 박성기 원사의 30년 근속을 기념하는 근속휘장 수여식과 다과회가 있었다. 이날로 군생활 30년을 맞은 박성기 주임원사는 1973년 5월 19일 입대하여 20사단 공병대 본부 중대 보급하사관, 미8군 PLDC 행정관, 미2사단 본부중대 주임상사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군 지원대 주임원사를 맡고 있다. 사진은 축하객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한국군 지원단 단장 김덕곤 대령(왼쪽)과 박성기 주임원사(가운데), 부인인 강필연 여사(오른쪽)가 케익을 자르는 모습

제 23 화학대대 태권도 체력단련 - 카투사와 미군 우호 증진 도모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예하 대구 지역대 23 화학대대에서는 태권도에 대한 미군들의 관심과 열의가 점점 높아지면서 태권도를 활용한 체력단련이 한창이다.

23화학대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미군과 카투사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한 시간 동안 태권도 PT를 실시하여 왔다. 특히 미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태권도 PT는 23화학대대 지원대장 이자 태권도 공인 3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박기철 대위와 공수부대 태권도 교관 출신으로 현재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안재삼 사범, 그리고 태권도 유단자인 카투사들의 참여 및 지도로 더욱 더 내실을 기하고 있다.

현재 부대 내 미군들을 중심으로 태권도 PT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총 30여 명의 미군들이 한국의 고유미술을 익히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열의를 가지고 수련해온

23화학대대 대대장 바넷 중령과 부대대장 바너 소령은 지난 달 27일에 실시된 승단 심사에 참가하여 태극품세, 겨루기, 기본 발차기 등 약 1년 동안 꾸준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임으로써 주위 관계자들을 놀라게 함과 동시에 초단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미국에서 유년시절부터 태권도를 배워 이미 1단을 보유하고 있는 던 소위는 경상북도내 태권도 대회 출전을 목표로 수련하고 있으

며, 로바즈 대위는 짧은 수련기간에도 불구하고 카투사 조교에게 일과 후 태권도 과외수업을 받을 정도로 열성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태권도 PT는 미군과 카투사 모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는 한미 상호간의 이해와 우호 증진을 더욱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23 화학대대 지원대장 박기철 대위는 다음과 같이 태권도 PT를 운영하는 소감을 밝혔다.

"태권도가 정신과 육체를 단련하는데 무엇보다도 좋은 무술임을 미군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지도하고 있으며, 미군들이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를 함께 배우고 익힘으로써 한국을 더욱 이해하고, 상호간 전우애가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권도를 통해 미군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가슴이 매우 뿌듯합니다."



제공사진

매주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태권도 PT를 통해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도모하는 23화학대대 소속의 카투사와 미군들의 모습

한국군 지원단 본부 병장 이민용

카투사지는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송 공인 신문임. 주한 미군 인색장에서 1회 3,500부씩 월 2회 발행됨.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 육군성의 그것은 아님. 카투사지는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됨.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2372건물 107호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7196/4683/3537(fax)임.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낼 것임. 전자우편 주소는 kimddong@usfk.korea.army.mil임.

- 미8군 사령관
- 중장 찰스 씨 캠펠
- 한국군지원단장
- 대령 김덕근
- 미8군 공보실장
- 중령 스티븐 에이 보일란
-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 대위(진) 이세희
- 편집장
- 병장 김대동
- 기자
- 병장 이만석
- 상병 강병삼
- 일병 장승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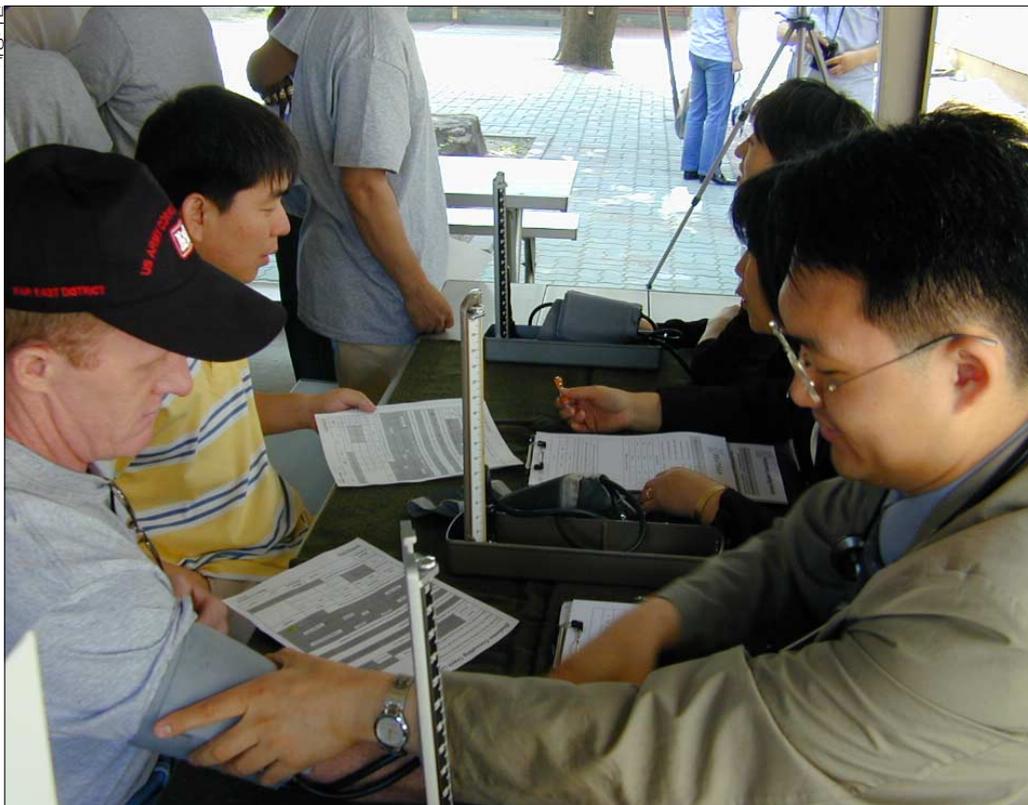


- Eighth U.S. Army Commander
- LTG Charles C. Campbell
-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 LTC Steven A. Boylan
- Command Information OIC
- MAJ Lee M. Packnett
- Editor
- SGT Kim, Dae Dong
- Staff Writers
- SGT Lee, Man Suk
- CPL Kang, Byung Sam
- PFC Jang, Seung Mo
- Special Assistant
- Mr. Oh, S. C.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or Eighth U.S.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3,5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Room 107 Bldg. 2372,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7196/4683/3537(fax).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parky@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극동지구대, 건강검진행사 주최

지난 5월 15일 극동지구대(Far East District) 예하의 안전건강관리소는 안전의 날(Safety Day)을 맞아 건강검진 행사를 가졌다. 미 공병단은 매년 안전의 날을 지정해 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과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이들의 사고와 질병을 예방해 왔다. 극동지구대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있는 미군 주요 시설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사를 주최해왔다. 사진은 한국당뇨협회에서 나온 간호사들이 극동지구대에서 근무자들의 혈당치를 재고 있는 모습



제공사진

공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집합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723-6460

E-mail: kimddong@usfk.korea.army.mil

■ 군상식

중국 탱크 -Type 90

1960년대부터 중국은 북쪽 국경지역에서 소련으로부터 장갑기동군에 의한 침공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인민해방군이 운용중이었던 대부분의 59식, 69/79식, 80



제공사진

소련의 침공을 대비해 만든 초기의 Type 90 탱크

식 탱크들은 소련제 T-54 탱크의 1950년대 설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때문에 중국군 내부에서는 소련제 T-72 탱크에 필적할 만한 탱크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1980년대 중국은 중동지역에서 수 대

의 T-72 탱크를 입수했으며 이를 기초로 새로운 탱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당시 개발계획의 주요 컨셉은 T-72의 차체와 서방세계의 120mm 활강포, 전투관리시스템, 야간관측시스템, 엔진 등을 탑재한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 들어 냉전이 끝나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새로운 탱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그러나 중국군 지도부는 1991년 걸프전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서방측의 M1A1과 레오파드2와 경쟁할 수 있는 3세대 탱크를 자체설계해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중국이 개발한 3세대 탱크의 첫 모델은 90-II 식으로 1991년 최초로 공개됐다. 그러나 파키스탄에 알 칼리드(A1 Khalid, MBT-2000)라는 이름으로 수출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90-II 식 탱크에 사용된 몇몇 신기술은 아직까지도 실험적인 플랫폼으로

남아있다.

1995년 러시아는 T-80U의 변형모델을 중국인민해방군 지도부에 선보였다. 그 결과 중국이 진행중이던 3세대 탱크의 주요부분이 재설계됐으며 신형 98식 탱크가 탄생하게 됐다.

90식 탱크는 조종석이 전면에 위치하고 포탑이 탱크 중앙에 자리잡고 있으며 엔진은 탱크 후미에 위치하고 있는 등 전형적인 재래식 설계를 사용한 것이다. 탱크의 파워팩은 야전에서 30분 내에 제거될 수 있어 수리에 편리하다. 서스펜션은 재래식 토션 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양측에 6개씩의 로드휠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동 스프로킷은 뒷쪽에 자리잡고 있다.

포탑과 차체는 단조강을 사용했으며 복합장갑층이 두께 600 mm 정도인 포탑 전면의 방위력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한편 경사면의 장갑두께는 450 mm 내외이다.

탱크의 장갑은 모듈화되어 있어 손상부위만 교체할 수 있으며 수명주기 동안의 업그레이드에도 매우 편리하다. 탱크의 장갑능력 강화를 위한 반응장갑의 장착도 가능하다.

주포는 125 mm 자동활강포이며 고폭탄, 파쇄형고폭탄, APFSDS 탄 등의 다양한 탄종을 사용할 수 있다. 보통 39발의 포탄을 탑재하고 있으며 전차장과 포수는 주간용 조준경과 야간용 열상 조준장비를 사용한다. 또한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자동추적장치도 사용하며

컴퓨터로 처리되는 화력통제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부 무장으로는 7.62 mm 동축 기관총과 12.7 mm 대공사격용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다.

차체와 포탑은 복합장갑판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특히 포탑의 전면부에 장착되는 장갑판은 교체가 쉽도록 설계됐다. 6열 연막탄 및 유탄 발사기 2문이 포탑 좌우측에 장착되어 있다.

90 식과 알 칼리드 탱크가 개발될 당시 4 가지 이상의 파워팩을 놓고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결국 퍼킨스사의 1,200 마력짜리 CV-12 콘도르(Condor) 디젤 엔진과 프랑스제 SESM ESM 500 자동 트랜스미션을 탑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자료출처: www.militaryreview.com



제공사진

콘도르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챌린저 1 탱크

카투사들의 한마디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177 경리대대 A중대 상병 박가람

청평,대성리... 누구나 한 번쯤은 유명한 MT 장소로 그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 곳은 북한강의 지류인 하천을 끼고 발달한 MT촌인데 반하여, 그 지류의 상류 계곡에 자리잡은 펜션이라 하는 목조주택형 관광지가 그 곳에 많이 지어져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연을 느끼며 등산 또는 산책도 하고, 고요한 아침 안개를 벗삼아 서로 정신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장소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177경리대대 본부중대 병장 박영곤

"5월의 내 사랑이 살아 숨쉬는 곳..." 너무나 낮은 이름, 그래서 조금은 식상할지도 모를 그곳. 하지만 소양강을 따라 올라가 댐의 정상에 섰을 때 살갓에 와닿던 차가운 겨울 바람의 설렘은 아직도 뚜렷히 나의 추억을 되살린다. 어느 겨울의 이른 아침, 친구들과 혹은 이성 친구와 함께 잠시나마 일상을 뒤로하고 춘천가는 기차에 몸을 맡겨 보는 것도 좋은 추억 여행이 될 것이다.



177경리대대 본부중대 일병 윤일상

경기도 고양시 벽제에 중남미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다. 어떤 분이 30년에 걸쳐서 모은 중남미 지역의 진기한 물품들이 교외의 한적함과 묘하게 어우러져 멋들어져 있던, 파사로운 햇살과 더불어 넉넉했던 기차 여행은 나에게 아직도 잊지 못할 좋은 느낌이자 추억이다. 기회가 되면 기분전환 삼아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좋은 추억거리가 되리라 생각된다.



177경리대대 본부중대 이병 김광겸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여행지는 군 입대 일주일전에 갔던 동해 망상이다. 겨울이라 그런지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밤바다의 풍경은 한창 예민했던 시절,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 같다. 삼해 중에 역시 동해가 제일 가볼만한 곳 같은데, 특히 동해 망상은 탁 트인 바닷가에 바다의 화려함과 고요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좋은 여행지라고 생각한다.



카투사 신문 강병삼

177 경리대대

177th Finance Battalion

"DIAMOND IN THE ROCK"

5월 초에서 중순까지 서울에서 열린 Area II 카투사/미군 친선주간 운동경기 행사에서 175 경리단은 좋은 경기내용을 선보이며 8개 종목 중 농구, 소프트볼, 미식축구 등 3개 종목에서 1위를 차지, 8개 팀을 통틀어 전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하지만 우승에 기여한 175 경리단의 팀원들 중 상당수가 동두천에서 용산까지 먼 길을 와서 참가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175 경리단 이하의 177경리대대가 그 주인공으로, 친선주간이 끝난후 평소엔 일하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로 돌아간 그들을 찾아가 보

았다. 177경리대대는 175경리단 소속으로, 용산에서 동두천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왼쪽 어깨에는 175 경리단의 부대마크를 달고 있지만, 그들의 가슴에 달린 'Warrior Support' 라는 패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2사단에 직접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Area I 미군들의 급여와 관련된 재정 문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경리 부대의 특성상 대대 자체가 큰 편이 아니지만 특히 카투사는 12명으로 적은 편이다. 본부중대, A 중대, B 중대, C 중대로 이뤄진 대대에서 카투사들은 C 중

대를 제외한 전 중대에서 일하고 있다. 본부중대의 카투사들은 대대 인사과, 작전과, 전산처리과, 보급 등 예하 중대를 지원, 관리하는 일들을 하며, A, B 중대의 카투사들은 경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177경리대대는 전투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투에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지만 유사시에 대비, 야전에서 도 사무실에서와 똑같은 업무수행능력을 보일 수 있는지 시험하는 훈련들을 한다. EXEVAL (Exercise Evaluation)과 FTX (Field Training Exercise) 등 1년에 4박 5일 정도의 훈련이 4회 가량 있다. 훈련시엔 준비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를 야전에서

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대대원들의 평이다.

177경리대대의 카투사들은 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병 진입시 선임병들이 많은 격려를 해주며 OJT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한다. 박영곤 병장은 "경리와 관련된 영어로 된 전문용어, 약어가 많아 일을 배우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비슷하며 동일시간에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한다"고 말했다. 특히 카투사들이 맡은 색션의 일은 카투사들끼리 OJT를 하며 전해져 내려오고, 그 외에 훈련을 준비하

는 몇가지 일들도 카투사들이 전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의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한다.

177 경리대대 선임병장 박영곤 병장에 의하면 177경리대대는 대대라고는 하지만 소규모이고 대대 내 카투사수가 12명이기 때문에 카투사들끼리 가족적인 분위기이며, 서로 잘 알고 신경써주는 것은 물론 대대원 전체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희망하는 미군에 한해 수요일에 1시간씩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명 'KATUSA trip' 이라고 해서 한달에 1-2 번씩 카투사들이 미군을 데리고 서울이나 서울 근교로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177경리대대는 2달여 전부터 동두천여자중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1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 미군과 카투사가 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많은 수의 병사들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고 자진해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 활동을 기획한 177 경리대대장 Wayne Stevens 중령은 이에 대해 "지역사회를 도울 만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부대들과는 차별화된 활동을 하고 싶었다"며 "청소년들,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으면 한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하였다. 그는 "카투사 선임병장과 주임상사가 학교를 섭외, 물색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공을 돌렸다.

이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PT는 월, 수, 금 3일에 하며, 한달에 한번은 태권도PT, 대대 달리기를 한다. 177 경리대대의 PT자체는 다른 2사단 부대에 비해 힘든 편이 아니지만 부대에서 운동을 장려하고, 또 자율적으로 운동하는 분위기 때문에 성적이 좋다. 카투사의 1/3이 PT 마스터이고 대부분 260을 넘는다. 써전스 타임의 경우 A, B, C 중대는 경리와 관련된 연습을 하는 반면 본부중대는 NBC, CTT 등을 연습한다.

이들은 2사단 부대는 아니지만 부대의 위치 특성상 패스를 받아야 나갈 수 있으며, 따라서 많은 인원이 주말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에 부대에 남아 도서관에 가거나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177경리대대 A중대 특수처리과 보너스 섹션에서 2사단 전체의 보너스를 담당하고 있다는 박가람 상병은 "보너스와 관련해 하루 종일 끊임없이 찾아오는 미군들과 영어로 상담하고 문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일"이라면서도 일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점차 변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제가 일하는 섹션에 대해 힘들게 일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제 일에 대해 제가 제일 잘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줄 때, 섹션의 NCO가 되어 써전스타임의 교환을 맡고, 어느새 섹션이 저에게 맡겨져 있을 때 일에 대해 강한 애착을 느꼈습니다."

177경리대대 특수처리과 임상준 병장은 "남들이 다루기 꺼려하는 강등, 탈영, 강제전역, 처벌시 발생하는 월급 변동 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며 "경리 일이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몰라줘 아쉬운 감이 있지만, 몇달에 걸쳐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경리병으로서 드물게 공중강습기장도 달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만 있던 군생활 중 새로운 것을 원하던 차에 자리가 나서 지원, 부대원들과 경쟁을 거쳐 참가, 획득하게 되었다"고 했다.

177 경리대대 B 중대 출장계(Travel Section)의 윤현웅 상병은 자신의 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기지 안에 몇 안 되는 비전투부대, 인디언헤드 패치를 달지 않은 부대라 보통 쉽다고들 하는데 생활, 규정은 2사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야근도 잦고,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병사들에게 중요한 일을 처리해 주는 데서 보람도 느끼고, 2사단에 전입은 미군들이 처음 만나는 카투사 중 하나가 저인 만큼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2사단에 전입오는 미군들이 계급, 가족 수, 결혼 여부에 따라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초작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177경리대대 B중대 정봉진 상병은 "일이 많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군들과 일하는 시간이 길어 사이가 좋아지고 사회성 또한 기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

했다. 그는 "어떤 보직이든 어려움이 있을텐데 약한 모습을 보이는 대신 최선을 다해 잘 극복하고 앞으로 있을 사회생활에 밑거름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덧붙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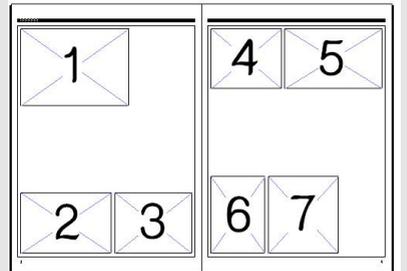
Stevens 중령은 "대대 인사과의 경우 카투사(조태근 상병)가 NCOIC를 맡고 있을 만큼 대대 전체에서 카투사가 인정받고 있으며 그들이 대학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도 대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카투사들은 미군들을 자주 데리고 나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도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한국을 배우는데 카투사들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177경리대대의 Mark Sullivan 주임상사는 "부대에 대한 카투사들의 공헌도는 환산할 수 없고, 그들 없이 부대가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며 카투사들이 영리하고 금세 배우기 때문에 경리대대의 일에 잘 맞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모든 병사들에게 "옳은 일을 하라"(Do the Right Thing)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177경리대대는 카투사들이 중대마다 책임을 지니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 카투사 선임병장의 사무실이 대대장 사무실 바로 옆에 따로 구비되어 있는 등 소수의 카투사들이 대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고, 그에 상응한 대대차원에서의 배려도 상당한 것처럼 보였다. 그 비결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 대대전임병장 박영근 병장의 말로 답을 대신할까 한다.

"자의로 군대에 왔건, 그렇지 않건 무엇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있게 일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고 무엇인가 크게 얻어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상병 강병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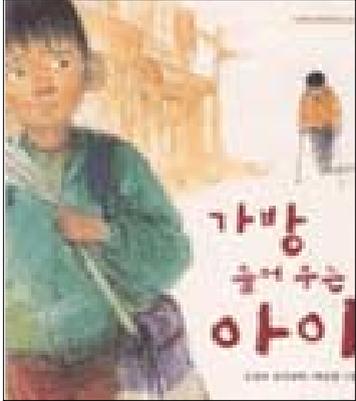
1. 177경리대대 카투사 전원이 모인 모습
2. 본부중대의 윤일상 일병(오른쪽)과 김광겸 이병이 훈련 후 부대로 돌아와 험비를 정비하고 있다.
3. A중대 박가람 상병이 대대 인사과에서 온 문서를 접수, 결과보고를 설명하고 있다.
4. B중대 윤현웅 상병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5. A중대 임상준 병장이 고객과 월급 문제를 상담하고 있다.
6. B중대의 정봉진 상병이 기한이 지난 서류를 파기하고 있다.
7. 177경리대대 선임병장 박영근 병장(오른쪽)과 B중대 상병이 카투사들의 주말 패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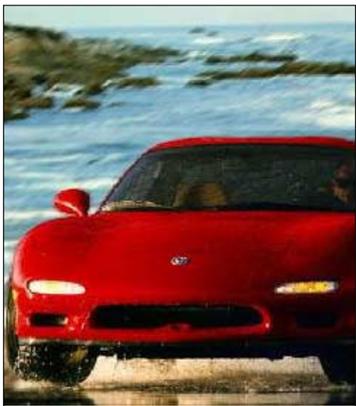


BESTSELLER

가방 들어주는 아이

고정욱 / 사계절

석우는 장애 때문에 목발을 짚고 다니는 영택이의 가방을 들어주는 일을 맡게 된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놀림과 주위 사람들의 시선으로 가방 들어다주는 일이 못내 싫었지만 차츰 석우는 친구를 도와주는 예쁜 마음을 키워나간다. 영택이를 도와주며 칭찬도 받고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을 받는 영택이와 친구가 되면서 석우는 점점 성숙해져 간다. 동심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해주는 책!



WEBSITE

오토 스파이

www.autospy.net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매일 업데이트 되는 국내외 자동차 관련 뉴스와 사진, 동영상, 스크린세이버, 테마파일 등이 있다. 최신형 스포츠카 등 다양한 차들의 인터넷 모토 쇼! 자동차에 관한 궁금증들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사이트이다. 자동차의 탄생에서 현대의 최신 자동차까지 자동차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도 있다. 자동차 매니아라면 꼭 알아야 할 사이트!

■ 카 투 사 기 고 문

이현규의 축구 이야기

세계 최고의 프로리그
->Liga Futbol Primera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스페인 축구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이 두 거대 클럽으로 요약된다. 과거 프랑코 독재시절부터 지속 되어온 마드리드와 까탈루냐 지방의 지역감정은 분노와 증오를 넘어 작년 두 팀의 시합 직전 일어난 자동차 폭발 테러로 까지 이어졌다. 까탈루냐 지방은 스페인과는 다른 독립된 축구협회를 가지고 있으며 독자적인 유니폼을 사용하고 있다. 유럽에서 최강의 리그와 수준급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이나 유럽 선수권 대회등에서의 우승경력이 전무한 이유는 까탈루냐 지방 출신 선수들과 비 까탈루냐 출신 선수들의 부조화에 있다. 작년 2002 한일 월드컵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 예선 1위 통과로 한층 나아진 조직력을 선보여 스페인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수준급의 플레이를 구사하며 승승장구하던 돌풍의 핵 대한민국을 만나 무릎을 꿇어야 했다.

황실의 클럽 -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를 비롯, 레알 베티스, 레알 소시에다드 등 프리메라 리가에는 팀 이름 앞에 '레알'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팀을 여럿 볼 수 있다. 프리메라 리가가 생기기 한참 이전, 축구팀을 만들

기 위해서는 왕실의 승락이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스페인 왕가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고있는 클럽은 레알 마드리드 뿐이다. 챔피언스 리그 9회우승으로 기록으로나 선수 구성으로나 세계 최고의 축구팀으로 불리기에 모자람이 없다. 라이벌인 바르셀로나에서 피구를 영입한 것을 비롯, 지단과 호나우도까지 불러들이며 최강의 공격력을 구축, '지구 방위대'라는 찬사를 듣고있다. 1950년대를 풍미한 스타인 알프레드 디 스테파노와 푸스카스. 98 월드컵 득점왕 슈케르, UFO 슛으로 유명한 카를로스,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역대 최다골 기록 소유자인 이에로 등 수많은 스타들이 거쳐간 팀이다. 화려한 공격으로 대변되는 스타일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수비력이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까탈루냐의 자존심 - 바르셀로나

프랑코 독재시절 부터 수많은 억압을 받아온 까탈루냐 인들에게 바르셀로나는 하나의 축구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축구전용 구장으로는 가장 큰 수용인원을 보유할수 있는 누캄프 구장을 홈 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파란색과 보라색의 세로선 조합 유니폼을 착용한다. 10만명 이상의 시즌 티켓 구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족의 자존심을 위해 유니폼 전면에는 스폰서를 새겨 넣지도 않는 독특한 팀이다. 토탈 싸커의 중심이자 네덜란드의 축구의 모든것이라 불리우던 요한 크루이프의 영향으로 네덜란드 축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요한크루이프가 감독으로 재직 당시 다수의 네덜란드 선수들을 영입했으며 아직까지도 이들의 영향력이 팀내 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 바르셀로나의 전성기 시



제공사진

초호화 스타 군단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전 모습

절 팀의 주축이었던 피구와 과르디올라, 히바우도 등은 모두 클럽을 떠났으며, 특히 피구는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바르셀로나 쓰시오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아야만 했다. '돈만 아는 돼지'라는 원색적인 비난문구에서부터 피구가 코너킥을 칠 때 물병과 동전을 비롯한 수많은 오물들을 집어던지는 등의 직접적인 위협마저 가하고 있다. 피구의 이적과 더불어 바르셀로나는 침체를 맞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팀 리빌딩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최근 성적이 곤두박질 쳐 예전의 그 화려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2002/2003시즌을 맞아 히딩크 감독의 라이벌로 잘 알려진 루이스 반 갈 감독을 영입하였으나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어린 스타들인 사비올라와 리켈메, 어느덧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수비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푸울, 바르셀로나의 가장 위대한 주장으로 평가받는 과르디올라의 뒤를 이을 사비 선수들을 주목해 볼만하다.

-이외의 팀들

이외에 챔피언스리그에서 2연속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발렌시아, 화려하지는 않지만 실속있는 팀 구성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데포르티보 라 코루냐, 안정환 선수의 영입설로 국내 팬들에게 익숙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등의 팀들이 있다. 안정환 선수는 2003시즌 J리그 전반기 시즌을 마친 후 다시 한번 프리메라 리가의 진출을 시도해 본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이외에 레알 마드리드의 베컴 영입설로 전 세계 축구팬의 이목이 리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제공사진

피구의 바르셀로나 시절 당시 모습

41통신대대 일병 이현규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Talk N' Talk

제 14 장

* 저는 매주 일요일에 쇼핑가요.

대부분의 미국 부부는 맛별이를 하기 때문에 생활이 바쁘죠. 그렇다 보니 평일에 쇼핑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에 부부가 다정히 쇼핑을 하는 정겨운 모습을 연상하시며 오늘 내용을 연습해봅시다.

Topic : "저는 매주 일요일에 쇼핑합니다."

I go to the store on Sundays.

주제연구)

'요일' 앞에는 전치사 on 이 필요합니다. 특히 TOEIC 시험을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전치사 on + 요일'이라는 문체에 익숙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건 '요일' 이 복수형이 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Monday + s 이죠. 이런 경우엔 '매주 월요일'이라고 해석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every Monday 가 있지요.

A : What do you usually do on Sundays?

B : I go shopping on Sundays.

A : Me, too. Let's go together.

B: Okay, call me when you go.

번역)

A: 매주 일요일엔 보통 뭘 하세요?

B: 매주 일요일엔 쇼핑을 합니다.

A: 저두요. (괜찮으면, 또는 시간 되면) 같이 갑시다.

B: 좋지요. 가실 때 연락 줘요.

덧붙여)

오늘은 "Me, too." 를 볼까요? 이 말은 "당신 말이 맞고 저도 그래요." 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한 사람이 '긍정적인 표현'을 할 때 쓰죠. 예를 들어 "I like coffee." 할 때 "Me,too." 하면 "나도 당신처럼 커피를 좋아해요"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하신 분이 '부정적 표현'을 하면 "Me, too." 보다는 "Me, neither." 를 써야 합니다. 예를 보시면 "I don't like coffee." 할 때 "Me, neither." 라고 하면 "저도 당신처럼 커피 싫어해요"가 된다는 겁니다.

* 고기는 킹 마트가 제일싸요.

계속되는 쇼핑관련 표현입니다. "~가 제일 싸요" 라는 표현을 연습합니다.

Topic : "고기는 킹 마트가 제일 싸"

다"

Meat is cheapest at King Mart.

주제연구)

고기 meat 를 오늘 좀 볼까요? Red meat(소고기, 양고기, 돼지 고기 등) lean meat(순 살코기) dark meat(닭 다리살) white meat(닭 가슴살) 등 종류도 많지요. 그래서 "Dark meat please!" 라면 "닭 다리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A: I've tried all the shopping malls around here.

B: How are the prices?

A: Almost the same but meat is cheapest at King Mart.

B: What about dairy products?

번역)

A: 이 동네 쇼핑물을 거의 다 가봤어요. (쇼핑해 봤어요)

B: 가격이 어떤 거 같아요?

A: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고기는 '킹 마트'가 제일 싸던데요.

B: 유제품 가격은 어때요?

*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예요?

밤엔 일반 슈퍼 등은 모두 문을 닫지요. 이런 경우 우리는 24시간 open한 편의점을 찾습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Topic :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예요?"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주제연구)

'편의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옛날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에만 일을 하는 경제 구조 였지만 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 그들(야간 근무자)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게 된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편의점이 생성된 겁니다. 편의점이란 '편리하다'라는 뜻의 Convenience와 "가게"라는 뜻의 store 가 합쳐져 만들어졌습시다.

A: Excuse me,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B: Sorry, I'm a stranger here, but I think I saw one on the next street.

A: Thank you so much. Where are



you from?

B: Japan, I'm a tourist here.

번역)

A: 실례지만,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에 있나요?

B: 미안합니다만 전 이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다음거리에서 본듯 합니다.

A: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오셨나요?

B: 일본에서 온 관광객입니다.

덧붙여)

예를 들어 길에서 어떤 사람이 '이곳의 지리'를 물어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이곳 출신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위의 표현인 I am a stranger here.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지 않을까요?

* 쇼핑 가시면 (부탁이 있는데) 버터 좀 사다주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퍼가면 우유 하나만 사다줄래?"라는 표현 많이 쓰죠? 오늘은 그런 경우에 쓰는 표현입니다.

Topic: "쇼핑 가시면 (부탁이 있는데) 버터 좀 사다주세요"

When you go shopping, pick some butter up!

주제연구)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영어 단어 또는 표현에 대한 한 가지 뜻만 보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표현인 pick up 을 '~을 집어 들다'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pick up에는 '사람을 모시러 가다', '물건을 사오다' 등 다양한 의미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A: Jane, I'm going shopping. Do you want me to buy anything?

B: Will you pick up some butter?

A: Sure, anything else?

B: That's all. Than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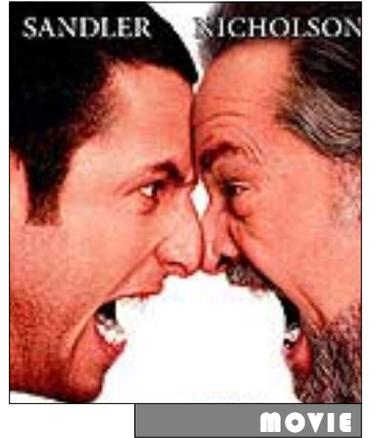
번역)

A: Jane, 나 쇼핑하는데 뭐 사다 줄 거 있어요?

B: 버터 좀 사다 줄래요?

A: 물론이죠, 다른 건 필요한 거 없어요?

B: 그게 다예요, 고마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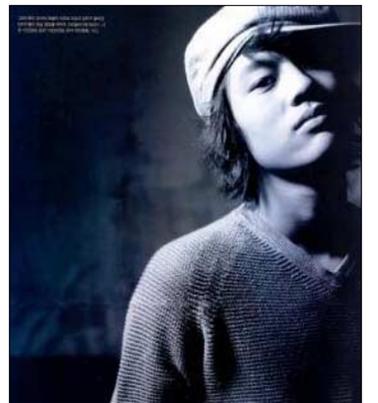


성질 죽이기

감독: 피터 시걸

주연: 아담 샌들러, 잭 니콜슨

비행기를 잘못 탄 후 이상 성격자가 되어 사고를 친 데이브 버즈닉(애덤 샌들러). 판사로부터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버디 라이델 박사(잭 니콜슨)가 운영하는 '성질 죽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권고받는다. 하지만 실로 요상한 남녀들과 비상식적인 치료를 주고받는 버디 박사를 보고 있자니 데이브는 성질만 더 버리게 된다. 데이브의 좌충우돌 스토리!!



TOP CHARTS

SEVEN

와쥬

2. 친구 / 안재욱
3. 피아노 / 조성모
4. Break Away/Big Mama
5. 나 어떡해 / 베이비복스
6. 제비 / 김건모
7. MR. A-Jo/As One
8. 꽃 / 이승환
9. 데스페라도 / 포지션
10. 나 어떡해/NRG
11. 어떤 사람 A/윤상
12. 내 삶의 반/한경일
13. 연인/김형중

린애

용산 메인포스트에 위치한 발보니 극장은 열광 그 자체였다. 카투사/미군 친선 주간을 맞아 이루어진 유명 연예인 초청 행사에서 카투사들은 TV 브라운관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들이 땀을 흘리며 열창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생생히 볼 수 있었다. 공연이 막바지에 이르러 외모와 실력을 두루 갖춘 가수 린애가 공연장에 모습을 보이자 카투사들의 함성은 더욱 커졌다. 이번 공연에서 가수 린애는 2집 타이틀곡 '연인' 등 2곡을 불렀



카투사 신문 윤종필

-2집에 대한 간략한 설명
이번 2집의 타이틀곡은 '연인' 이에요. 원래는 이 곡의 가사를 영어로만 썼어요. 약간 클래식한 리듬 진행에 힙합 리듬을 접목시켜서 만든 노래예요. 그런데 2집 앨범 녹음을 모두 마친 후에 모니터링 단계에서 이 노래가 많은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에 영어 가사 뿐만 아니라 한국 가사도 붙이게 되었고 결국 이 곡이 타이틀곡까지 되었어요.

-별명
특별한 별명은 없어요. 초등학교 때에는 제가 얼굴이 많이 하아서 '밀가루'라는 별명을 얻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 비해 얼굴이 많이 까매졌어요.

-부대에서 공연한 소감
제가 국군방송에 몇 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미군 부대는 이번이 두 번째이고요. 일단 공연 중 군인분들의 뜨거운 관객 호응이 가수들한테 힘을 가져다줘요. 특히 저희들에게 쳐주시는 힘찬 박수가 정말 많은 힘이 되지요.

-카투사에 대한 첫인상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카투사 하면 '지적이다'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일단 영어를 잘하시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원해서 얻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카투사들을 더 멋지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연예인
저는 패티김 선배님과 인순이 선배님 그리고 이은미 선배님을 존경해요. 가수는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여자가수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한 평생을 노래 하나로 살아오신 이 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앞으로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



가수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 제가 무대에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제가 녹음한 레코드를 듣고 친구가 낸 앨범처럼 편안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처럼 편안한 가수로 남고 싶어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
이제 딱딱딱한 2집이 나왔어요. 타이틀곡 '연인'을 통해서 가수활동을 열심히 하려고요. 그리고 2집 활동이 끝날 때 즈음엔 콘서트를 준비해서 직접 라이브 무대에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려고 해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저는 사실 정치적인 면은 잘 몰라요. 또 안다고 할지라도 저는 음악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가치관도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힘드시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살다보면 안 좋은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럴

발보니에서 들려온 감미로운 목소리

고 이 두 감미로운 곡은 카투사들의 마음을 따뜻이 녹이기에 충분했다. 본 기자는 땀을 흘리며 공연을 마치고 나오는 가수 린애와 인터뷰를 가졌다. 요즘에는 드물게 직접 자신이 부르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는 그녀를 인터뷰하면서 그녀의 확고한 음악관을 공감할 수 있었고, 그녀가 두터운 팬 층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알 수 있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린애예요. 1980년 10월 19일 생이고 현재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휴학중입니다.

-데뷔하게 된 계기
저는 연예계에 데뷔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전공하게 됐고, 또 부모님의 영향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를 꿈꾸었는데 지금은 노래만 하는 가수가 아니라 제가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해요.

-최근근황
지난주에 첫 방송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즘에 방송되는 음악 프로그램을 보시면 제 얼굴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카투사 신문 장승모

지 않을까 생각해요.

-군인이 멋있어 보일 때
역시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 제일 멋있어 보여요. 저같은 민간인에게는 일상적인 옷이 아니라서 그런 가 봐요.

-가수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제가 가수생활을 한 지 만 2년 쯤예요. 그다지 긴 시간은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피소드는 제가 가수생활을 하는 하루하루마다 생기는 것 같아요. 가수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길고도 짧게 느껴져요. 지난날들을 회상하면 가끔씩은 멍해지기도 해요. 또 새록새록 지난 기억들이 떠오를 때도 있고요.

-추천하고 싶은 책
요즘에는 바빠서 제 자신이 책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지만, 제가 원래 버지니아 울프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람이 쓴 '그리운 사람'이라는 단편집이 있는데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네요. 단편이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서도 잠깐씩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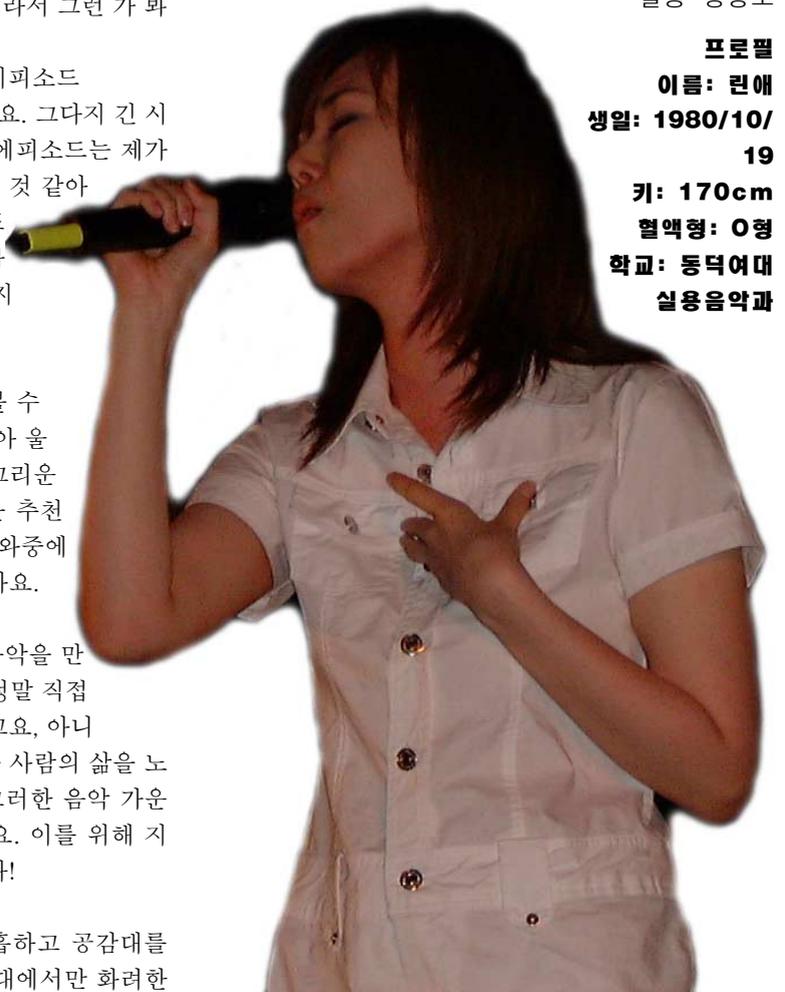
-자신의 음악관
저는 음악을 만들 때 자연스러운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자연스럽다는 것이 정말 직접적으로 자연을 노래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연 안에 있는 사람을 노래하는, 즉 사람의 삶을 노래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음악 가운데서 다양한 감정들을 담으려고 해요. 이를 위해 지금은 열심히 음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수로 남고 싶으신지
저는 무대에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가수이기도 하지만, 무대에서만 화려한

때 제 음악을 들으시면서 힘도 내시고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일병 장승모

프로필
이름: 린애
생일: 1980/10/19
키: 170cm
혈액형: O형
학교: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카투사 신문 강병삼